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이선영¹, 이정숙^{2*}, 김소연³

¹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상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³충남대학교병원 간호부 간호사

The Convergent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Sun-young Lee¹, Jeong-sook Lee^{2*}, So-yeun Kim³

¹Dep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²Dep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³Dep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urs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었다.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간호대학생 237명으로부터 자기기입식 설문을 조사하였고, 연구도구는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리더경험, 교우관계, 동아리활동에서 유의미했다.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였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들이 역량있는 간호사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37 nursing students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7, and the study instruments comprised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self-leadership.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self-leadership relat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 leader experience, friendship, and school club activities. The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self-leadership were significant, and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were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order to increas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hat enhance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This will help them grow into a competent nurse.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Self-Leadership, Converge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요즘의 시대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화되면서 환
자나 가족의 의료지식 수준이 증가하고, 국가에서는 인
증평가를 통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역량에 대해 평가를

*Corresponding Author : Jeong-sook Lee(luckyjs34@hanmail.net)

Received October 12, 2018

Accepted January 20, 2019

Revised November 21, 2018

Published January 28, 2019

함과 더불어 질적인 간호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나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간호가 준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능동적인 태도로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1].

셀프리더십은 목표달성을 위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2],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이므로 실무에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다[3]. 간호는 팀을 이루어 서로 협력해야하는 간호조직 속에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성장은 물론, 간호조직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개발은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4,5]. 대학졸업 후 현장에서 더욱 능동적이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간호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6],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뮬레이션실습, 문제중심학습, 팀기반학습 등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나[7] 아직은 표준화되거나 체계화된 셀프리더십 교육이 부족한 단계이므로 [1] 간호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사람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믿고[2], 스스로에 대한 자율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8],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사고나 행동을 보여준다[9]. 간호대학생이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셀프리더십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고 [5], 간호현장에서 필요한 독립성을 갖춘 업무수행이 어려워진다[7].

셀프리더십의 내적 동기부여, 자기역량 등의 부분은 자기효능감과 관련되는데[6],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성취경험에 의해 높아진다[10].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발전과 같은 내적 동기를 가지게 되고[6],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주어진 과제를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1].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으며[12,13]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14].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성취감을 얻게 되고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훈련을 통해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

사회적 지지는 주변 환경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차원적인 도움과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15],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16,17]. 대학생들은 가족, 학교 등 다양한 생활 속에서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는데 사회적 지지는 공식적인 사회생활로 진입하는 전단계인 대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셀프리더십은 강화될 수 있다[5].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아져 조직의 성과나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됨은 물론 개인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18].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15], 셀프리더십에서 말하는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는 자율성이나[8], 긍정성[5,9] 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확인하는 국내연구 [6,7,12,19]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와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5]는 미비한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이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적절히 적용하고 전문가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셀프리더십이 필요하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므로[5], 개인의 내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6]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를[15] 변인으로 하여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는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그들이 역량있는 간호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셀프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았으며,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 총 250부가 배포되었고 그 중 답변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하고 237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를 9개로 하였을 경우 최소 표본수가 16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 237명은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본 도구는 Sherer et. al.[20]가 개발하고 Hong[10]이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총 23문항 5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1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3.2 사회적 지지

본 도구는 Nolten[21]이 개발하고 Choi[5]가 사용한 도구이다. 총 27문항의 5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2.3.3 셀프리더십

본 도구는 Manz[22]가 개발하고 Jo et. al.[8]가 사용한 도구이다. 총 18문항의 5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Jo et. al.[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남성은 25명(10.5%), 여성은 212명(89.5%)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51명(21.5%), 2학년 53명(22.4%), 3학년 65명(27.4%), 4학년 68명(28.7%)이었다. 리더경험이 있는 경우는 92명(38.8%), 없는 경우는 145명(61.2%)이었고, 교우관계는 좋음이 137명(57.8%), 보통이 100명(42.2%)이었다.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는 220명(92.8%), 하지 않는 경우는 17명(7.2%)이었고, 경제상황은 중간이 189명(79.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37)

Variable	Division	n(%)
Gender	Male	25(10.5)
	Female	212(89.5)
School year	1	51(21.5)
	2	53(22.4)
	3	65(27.4)
	4	68(28.7)
Leader experience	Yes	92(38.8)
	No	145(61.2)
Friendship	Good	137(57.8)
	Middle	100(42.2)
School club activities	Yes	220(92.8)
	No	17(7.2)
Economic condition	High	25(10.5)
	Middle	189(79.7)
	Low	23(9.7)

3.2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에 대한 정도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34±0.46,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88±0.55,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57±0.50이었다.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Degree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self-leadership (N=237)

Variable	M±SD	Range
Self-Efficacy	3.34±0.46	2.09-4.65
Social support	3.88±0.55	2.52-5.00
Self-Leadership	3.57±0.50	2.17-5.00

3.3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의 차이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는 리더 경험(t=2.551, p=.011), 교우관계(t=3.756, p<.001), 동아리 활동(t=2.102, p=.037), 경제상황(F=3.123, p=.04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리더경험이 있는 경우,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고, 경제상황은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서는 교우관계(t=4.083, p<.001), 동아리활동(t=3.266, p=.001), 경제상황(F=7.41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가 더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경제상황이 좋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셀프리더십의 차이에서는 리더 경험(t=2.165, p=.031), 교우관계(t=2.793, p=.006), 동아리 활동(t=2.321, p=.02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리더경험이 있는 경우,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 셀프리더십은 높았다. 아래 Table 3과 같다.

Table 3. Differences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self-leadership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37)

Variable	Divisio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Self-Leadershi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3.40±0.50	0.770 (.442)	3.93±0.54	0.494 (.622)	3.70±0.54	1.353 (.177)
	Female	3.33±0.46		3.87±0.56		3.55±0.50	
School year	1	3.35±0.45	0.029 (.993)	3.80±0.61	1.469 (.224)	3.59±0.47	0.610 (.609)
	2	3.34±0.44		4.00±0.54		3.61±0.61	
	3	3.35±0.46		3.89±0.59		3.60±0.47	
	4	3.33±0.50		3.83±0.46		3.50±0.46	
Leader experience	Yes	3.43±0.51	2.551 (.011)	3.89±0.56	0.402 (.688)	3.66±0.48	2.165 (.031)
	No	3.28±0.43		3.87±0.55		3.51±0.51	
Friendship	Good	3.43±0.47	3.756 (<.001)	3.99±0.54	4.083 (<.001)	3.65±0.51	2.793 (.006)
	Middle	3.21±0.43		3.71±0.53		3.47±0.47	
School club activities	Yes	3.36±0.47	2.102 (.037)	3.91±0.54	3.266 (.001)	3.59±0.50	2.321 (.021)
	No	3.11±0.36		3.46±0.56		3.30±0.41	
Economic condition	High ^a	3.55±0.67	3.123 (.046)	4.26±0.60	7.413 (.001) (a>b,c)	3.80±0.54	2.883 (.058)
	Middle ^b	3.32±0.43		3.84±0.54		3.54±0.49	
	Low ^c	3.28±0.42		3.75±0.47		3.54±0.51	

3.4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r=.494, p<.001$), 셀프리더십($r=.570,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셀프리더십과($r=.566, p<.001$)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래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self-leadership (N=237)

Variable	Self-Efficacy r(p)	Social support r(p)	Self-Leadership r(p)
Self-Efficacy	1		
Social support	.494(<.001)	1	
Self-Leadership	.570(<.001)	.566(<.001)	1

3.5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리더경험, 교우관계, 동아리활동을 더미변수로 전환하고,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와 함께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유의미하였고($F=35.854, p<.001$) 설명력은 42.5%였으며 사회적 지지($\beta=.384, p<.001$)와 자기효능감($\beta=.373, p<.001$)이 셀프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Table 5와 같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903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는 0.705-0.910, 분산팽창인자는 1.099-1.41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0.852	0.213		3.992	<.001
Leader experience	0.073	0.053	.072	1.374	.171
Friendship	-0.023	0.053	-.023	-0.431	.667
School club activities	0.010	0.100	.005	0.101	.919
Self-Efficacy	0.402	0.062	.373	6.438	<.001
Social support	0.348	0.053	.384	6.534	<.001
Adjusted R ² =0.425, F=35.854,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3.34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Lee et. al.[23]의 3.21점보다 높았고, Oh[24]의 3.47점보다는 낮았으나 중간 이상의 점수였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는 리더경험이 있는 경우,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우관계가 좋은 집단이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23]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였다. 리더경험이나 동아리활동과 관련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므로[25] 리더경험이 있거나, 동아리활동을 하는 집단의 경우 리더로서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경험을 했거나, 동아리활동과 같은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소진되는 것을 줄여주고[25] 대학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중요한 특성이며[24,26],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도록 영향을 준다[26,27]. 또한 자기효능감이 갖는 스스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와[7]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은[10] 개인의 정서적 반응과 생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작업 수행 시 성과를 높여준다[28]. 학교 현장에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개별상담, 멘토와의 연결, 성취감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집단 프로그램 등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점수는 3.88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1]의 3.78점보다 높았고, 평균보다 높아 자신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서는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상황이 좋은 경우가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다는 연구[29],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인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연구[30]와 같은 맥락의 결과였다. 사회적 지지는 주변에

서 얻는 정서적이며 물질적인 도움이므로[15], 교우관계가 좋거나 동아리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정서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고, 경제상황은 사회적 지지 중 물질적 자원에 해당하므로 경제상황이 좋은 경우 자신의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가족 외에도 학교생활과 그 이외의 활동과 생활들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며 발전하면서 성장한다[5]. 사회적 지지가 높은 대학생들은 사회적 지지자원이 많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대인관계에 만족하며 행복감도 증가한다[31].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은 물론 교수나 친구들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17], 교수의 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은 물론 수업 중 집단활동, 비교과과정에서의 소그룹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 대인관계를 경험하도록 하고, 주변의 지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57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 Kim[6]의 3.24점 보다는 높았고, Jo et. al.[8]의 3.63점 보다는 낮았다. 이렇게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 특성 중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한 셀프리더십의 차이에서는 리더경험이 있거나, 교우관계가 좋거나, 동아리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셀프리더십이 높았다. 이는 리더십 경험이 있는 집단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 셀프리더십이 높았다는 선행연구[5]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3,8] 셀프리더십이 높았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였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므로[1]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리 활동이나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는 집단활동 등을 통해 셀프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셀프리더십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며[7,19],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으면 자기효능감이 올라가고[11,27], 셀프리

더십도 증가한다는[5,32]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12], 사회적 지지가 높은 대학생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셀프리더십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셀프리더십은 개인 스스로의 성장과 더불어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여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자신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학습을 통해 발전하고 유지된다[12,33]. 그러므로 이 사회가 기대하는 역량있는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인 셀프리더십은 대학생 때부터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므로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사회적 지지자원을 발굴하고 제공하여 셀프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셀프리더십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로 확인되었으므로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셀프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추후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셀프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상과 변수를 다양화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J. Y. Choi & S. B. Im. (2018).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Locus of Control.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4(3), 182-192.
DOI : 10.11111/jkana.2018.24.3.182
- [2] S. Y. Kim & S. S. Kim. (2017). The Effect of Undergraduate' Self-Leade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Networking Behavior Moderator Effect.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3), 57-81.
DOI : 10.24878/tkes.2017.12.3.057
- [3] J. H. Ryu & J. W. Cho. (2018). Influencing of Resilience and Innovative organization cultur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2), 525-534.
DOI : 10.21742/AJMAHS.2018.02.79
- [4] G. Y. Lee. (2016). Levels of self 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 in Metropolita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6), 233-253.
- [5] J. Y. Choi. (2016).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ulji University, Daejeon.
- [6] S. Y. Lee & Y. Y. Kim. (2016).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309-318.
DOI : 10.14400/JDC.2016.14.3.309
- [7] H. S. Kang & Y. Y. Kim. (2017). Influence of Self - 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617-625.
DOI : 10.5762/KAIS.2017.18.5.617
- [8] E. J. Jo, J. M. Kang & K. M. Lim. (2017).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typ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3), 94-104.
DOI : 10.5762/KAIS.2017.18.3.94
- [9] H. J. Jung & M. J. Chae. (2017).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Male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5), 105-117
DOI : 10.14257/ajmahs.2017.05.31
- [10] H. Y. Hong. (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1] K. M. Lee & C. H. Bum. (2017). A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golf majo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3), 265-273.
DOI : 10.15207/JKCS.2017.8.3.265
- [12] E. J. Kim. (2014).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2), 303-326.
- [13] S. E. Norris. (2008). An Examination of Self-Leadership. *Emerging Leadership Journeys*, 1(2), 43-61.
- [14] J. D. Houghton, J. Wu, J. L. Godwin, C. P. Neck & C. C. Manz. (2012). Effective stress management: A model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and student stress coping.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36(2), 220-238.
DOI : 10.1177/1052562911430205
- [15] I. S. Choi & E. J. Joo. (2016). Influ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6), 145-173.
DOI : 10.21509/KJYS.2016.06.23.6.145
- [16] H. S. Kim, D. K. Sherman & S. E. Taylor. (2008). Culture and Social Support. *American Psychologist*, 63(6), 518-526.
DOI : 10.1037/0003-066X
- [17] N. Yildirm, A. Karaca, S. Cangur, F. Acikgoz & D. Akkus.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tress, stress coping,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mong nursing students in Turkey: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Nurse education today*, 48, 33-39.
DOI : 10.1016/j.nedt.2016.09.014
- [18] M. R. Chung, B. S. Yee & S. Y. Park. (2015).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Kindergarten Teachers' Social Support in the Workplace, Self-Leadership, and Burnout.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3(2), 87-108.
DOI : 10.18 230 / tjye .2015. 23 .2.87
- [19] H. J. Wang, S. A. Jung, H. E. Park, H. S. Yoo, Y. H. Bae & J. Y. Kim. (2016). The Metacognition,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17(9), 619-627.
DOI : 10.5762/KAIS.2016.17.9.619
- [20]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 R. W. Rogers.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DOI : 10.2466/pr0.1982.51.2.663
- [21] P. W. Nolten. (1995).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Wisconsin-Madison University.
- [22] C. Manz. (1983).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23] S. Y. Lee, J. S. Lee & Y. Y. Kim. (2017).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401-409.
DOI : 10.14400/JDC.2017.15.5.401
- [24] Y. J. Oh. (2017).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07-317.
DOI : 10.14400/JDC.2017.15.7.307
- [25] K. Shoji, R. Cieslak, E. Smoktunowicz, A. Rogala, C. C. Benight & A. Luszczynska (2015). Associations between job burnout and self-efficacy: a meta-analysis, *Anxiety, Stress, & Coping*, 1-20.
DOI : 10.1080/10615806.2015.1058369
- [26] S. O. Kim. (2017).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Positive Thinking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435-444.
DOI : 10.14400/JDC.2017.15.12.435
- [27] Y. C. Kwon, C. Y. Jeong & Y. S. Seo. (2018). Validation of a Path Model for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197-206.
DOI : 10.14400/JDC.2018.16.1.197
- [28] J. Cherian & J. Jacob. (2013). Impact of self efficacy on motivation and performance of employee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8(14)*, 80-88.
DOI : 10.5539/ijbm.v8n14p80
- [29] M. Y. Han, Y. S. Kim, M. K. Jeon & I. J. Ki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in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Crisisonomy, 12(6)*, 53-65.
DOI : 10.14251/crisisonomy.2016.12.6.53
- [30] J. W. Park & M. J. Kwon. (2018). The Convergence Effect of Academic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on SNS Addiction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453-460.
DOI : 10.15207/JKCS.2018.9.4.453
- [31] S. J. Han & S. H. Lee. (2015). A Study on Structural Relations among th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Convergence Leisure Sports Activ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8)*, 515-523.
DOI : 10.14400/JDC.2015.13.8.515
- [32] H. K. Lee, L. A. Kim, J. E. Kim, Y. R. Lee, J. M. Lee, H. S. Han & H. K. Hwang. (2017). Converged Factors Affecting Learning Flow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5)*, 15-23.
DOI : 10.22156/CS4SMB.2017.7.5.015
- [33] I. S. Jung. (2018). A Study on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 self-efficacy, self leadership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5)*, 51-58.
DOI : 10.22156/CS4SMB.2018.8.5.051

이 선 영(Lee, Sun Young) [정회원]



- 198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76년 4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정신

· E-Mail : sylee601@kongju.ac.kr

이 정 숙(Lee, Jeong Sook) [중심회원]



- 2010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중독

· E-Mail : jslee34@smu.ac.kr

김 소 연(Kim, So Yeun)

[정회원]



- 2017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박사과정)
- 2011년 6월 ~ 현재 : 충남대학교
병원 간호사

· 관심분야 : 정신

· E-Mail : mareyou@naver.com